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과 책판*

- 조선후기 公州監營을 중심으로 -

Book Publication and Printing Woodblock of Choongchung Gamyoung

- focusing on Gongju Gamyoung in late Joseon dynasty -

金 昭 姬 (Kim, So-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감영책판의 간행과 보관 공간 |
| 2. 충청감영의 설치와 변화 | 6. 맺음말 |
| 3. 조선전기 충주감영의 서적 간행 | <참고문헌> |
| 4. 조선후기 공주감영의 서적 간행 | [부록] |

< 초 록 >

이 논문은 그동안 完營과 嶺營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충청감영, 그 중에서도 1602년 이후에 공주에 설치된 감영 즉 錦營의 도서간행에 관한 연구이다. 아울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錦營 冊板을 조사하여 충청감영 서적 간행의 특징적인 현상을 보완하였다. 공주감영은 약 69종 정도의 서적을 간행했는데, 약 39%에 달하는 27종이 충청 감사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집류이다. 공주감영에서 서적을 간행하는 방식은 여타 감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17세기 이후 문집 간행량이 증가하다가 18세기에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역시 完營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금영은 완영이나 영영과 달리 분량이 많은 서적이거나 왕명에 따라 간행된 의학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짧은 분량 안에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서적류(『**闡義昭鑑**』, 『**明義錄**』 및 각종 綸音과 事目 등)의 간행이 18세기에 증가했는데, 이 역시 완영이나 영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금영 인쇄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공주감영과 마곡사-靈隱寺-南穴寺와의 관련성, 마곡사와 晉州姜氏 및 豐壤趙氏, 영은사와 同福吳氏 등 감영(관찰사)과 사찰 및 공주에 세거하는 문중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글을 단초로 공주감영과 충청 지역 인쇄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감영 책판의 발굴, 도내 책판의 보존과 활용방안 등 후속 연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要語: 冊板目錄, 忠淸監營, 公州監營, 錦營, 完營, 嶺營, 印刷文化, 麻谷寺, 靈隱寺, 南穴寺, 監營冊板

* 이 논문은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전라감영 책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2017. 12. 01.)에서 발표한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과 현전 책판”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ksh3725@hanmail.net)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7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72집, 275-303,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275>]

<ABSTRACT>

This is the study on the book publication in Choongchung Gamyoung where had been so far neglected compared to Wanyoung and Youngyoung, especially Geumyoung which was Gamyoung built in Gongju since 1602.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book publication in Choongchung Gamyoung was supplemented upon investigation of Geumyoung printing woodblock that had not been known. Approximately 69 books were published in Gongju Gamyoung, of which 27 (about 39%) were the collections of literatures developed by Choongchung Governor. The publication methods by Gongju Gamyoung were not that different from the other Gamyoungs. Also, they showed the increase of collection publications since century but the decrease of them in 18th century, which is similar to the phenomenon appeared in Wanyoung. Unlike Wanyoung and Youngyoung, the books with heavy volume or medical books upon the Royal Order were not found in Geumyoung. Publications including the political intentions within the small contents had been increased in 18th century such as Chuneuisogam, Myungeuirok, various Ryuneum and Samok, etc., which was common in Wanyoung or Youngyoung.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Geumyoung publication culture was the relation of Gongju Gamyoung with the temples including Magok temple, Youngeun temple, and Namhyul temple. Gamyoung, temples and the families living in Gongju were closed related; Magok temple with Jinju Gang family and Poongyang Cho family, and Youngeun temple with Dongbok Oh family. With this study, further study projects are anticipated such as interests in Gongju Gamyoung and publication culture in Choonchung, excavation of Gamyoung printing woodblock,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s of woodblock in the Province.

Key words: printing woodblock, Choongchung Gamyoung, Gongju Gamyoung, Geumyoung, Wanyoung, Youngyoung, printing culture, Magok temple, Youngeun temple, Namhyul temple, Gamyoung printing woodblock

1. 머리말

이 글은 감영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던 서적 간행에 관한 연구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영 인쇄 문화의 두 축을 형성한 完營과 嶺營에 비해 간행량이나 위상의 측면에서 그다지 부각되지 못한 충청감영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영이란 조선시대 팔도에 파견된 감사가 거처하는 관청으로, 17세기를 전후로 감영의 위치와 체제에 변화가 나타난다. 충청감영의 경우 조선전기에 충주에 설치하고 별도의 감영시설이 없이 관찰사가 도내를 순력하는 行營체제였다면, 1602년에 공주에 감영을 이전하고 충청도 관찰사가 공주 목사를 겸하였고 공주에 머무르는 留營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1602년을 기점으로 충청감영이 소재했던 충주와 공주에서 관찰사가 주도하여 간행된 인쇄물을 대상으로 한다.

감영본의 조사 방법은 충주감영본의 경우에는 조선전기 지방관판본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는 『고사촬요』와 실물서적의 간행기록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서발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였다. 공주감영본은 조선후기에 작성된 각종 책판목록, 예컨대 1740년에 편찬된 『책판치부책』, 1759년의 『완영책판목록』, 1837년 이후의 『제도책판목록』, 1842년 이후의 『삼남소장책판』, 1796년의 『누판고』, 1784~1786년의 『각도책판목록』, 1778~1800년의 『고책판유치고』 등 각종 책판목록에서 공주·공산·충청감영·관서관찰영·홍충감영조에 수록된 서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¹⁾ 아울러 충주감영본의 조사에서와 같이 실물자료, 서발문의 내용,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은 조선시대 감영 인쇄의 두 축을 이룬 완영과 영영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고, 그 위상 또한 그리 높지 않았다. 일례로 『고사촬요』에 수록된 경상도와 전라도의 책판이 각기 387종과 336종인데 비해 충청도는 37종에 불과한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전라감영과 경상감영은 문헌의 기록이나 현전본의 수적인 우위에서 출판물이나 인쇄문화와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충청감영의 경우에는 연구 성과는 물론 관심 또한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감영본을 대상으로 한 박문열과 김성수의 논문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²⁾ 박문열은 충청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진 서적을 간행물의 성격(주제별), 지역별, 간행주체별(관판본, 사찰판본, 서원 및 사원판본, 사가판본)로 구분하여 간행물의 종류 및 충청지역 전적문화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청도, 충청감영, 공주감영, 호서관찰영 등의 간본을 별도로 구분함으로써 감영판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김성수의 연구는 충청감영 소재지

1) 책판목록의 편찬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오류를 보완한 “17~18세기 完營 출판의 간행양상과 특징 -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70집(한국서지학회, 2017), 68-69쪽을 참조할 수 있다.
2) 박문열, 『충청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89), 2; 김성수, “충청감영과 청주목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서지학연구』 45집(서지학회, 2010), 33-63.

인 충주와 공주 및 계수관이었던 청주 지역의 간행물을 조사하여 이를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 지역 서적간행의 특징을 서술했다. 그러나 감영에 한정하지 않고 감영이 존치하지 않았던 시기까지 아우르면서 감영 인쇄문화의 성격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조선후기 충청감영의 소재지였던 공주는 고대 백제의 왕도로 백제문화의 그늘에 가려 감영문화는 상대적으로 홀대당해 왔다. 2002년에 충청감영이 공주에 개영된 지 400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도 관찰사 전시회 개최, 『충청감영 400년』 책자발간, 공주 충청감영터 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나,³⁾ 그 이후 충청감영의 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시 사그라졌고, 감영문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서적간행과 관련해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조선시대 충청감영의 간행물을 재정리하고, 1602년 이후 공주감영[錦營]에서 이루어진 서적 간행과 책판 보관을 통해 조선후기 충청감영 인쇄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을 단초로 공주감영 인쇄문화에 대한 관심이 싹트고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2. 충청감영의 설치와 변화

충청도는 옛 마한의 지역으로, 995년(고려 성종 14)에 10도로 개편할 적에 忠州·剛州·歡州 등 13州를 中原道로 삼고, 公州·運州 등 11州를 河南道로 만들었다. 1105년(예종 원년)에 중원도와 하남도를 합하여 楊廣忠淸州道라 일컬었다가, 1170년(명종 원년)에 다시 두 도로 분리했다. 1313년(충숙왕 원년) 다시 통합하여 양광도라 칭했고, 1351년(공민왕 5)에 비로소 충청도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조선 개국 후에는 1395년(태조 4)에 충주에 충청감영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관찰사를 두어, 충주·청주·공주·홍주 등 4개의 牧과 12개의 郡 및 38개의 縣을 관할했다. 1896년(고종 33)에 좌도와 우도를 나누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분리하여 북도는 충주가 17개 군을 다스리고, 남도는 공주가 37군을 관할했다.

조선시대 충청도라는 명칭은 무려 15차례 이상의 변동이 있었다. 예컨대 1505년(연산군 11)에 忠公道, 1550년(명종 5)에 淸公道, 1613년(광해군 5)에 公淸道, 1628년(인조 6)에 公洪道, 1646년(인조 24)에 洪忠道, 1656년(효종 7)에 공홍도, 1670년(현종 11)에 충홍도, 1680년(숙종 6)에 공홍도, 1729년(영조 5)에 공청도로 불리다가 1731년(영조 7)에 홍충도로 변경되었다. 1776년(정조 1)에 다시 홍충도로, 1825년(순조 25)에 공충도로 고쳤다가, 고종 34년에 충청도로 다시 환원되고, 1862년(철종 13)에 공충도로 변경되었다.⁴⁾

1395년(태조 4)에 충주에 설치된 충청감영은 임진왜란 이후 공주로 이전되었다. 공주로 감영이

3)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역사문화학회, 2008), 113-144.

4) 『大東地志』.

옮겨간 이유에 관해서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외침에 대한 방비가 수월하고, 통치 기능적인 면에서 교통의 편리성 등을 들고 있다. 공주감영의 개영시기에 대해서는 1598년, 1600년, 1602년, 1603년 등의 견해가 있는데,⁵⁾ 대체로 1602년(선조 35)에 충청도 관찰사에 재임 중이던 柳根(1549~1627)이 감영의 설치를 계문하여, 1603년(선조 36)에 쌍수산성을 수축하고 영사, 공북루, 진남루를 설치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감영의 위치는 4차례 이상의 변경이 있었다. 쌍수산성에 감영을 설치한 지 불과 1년만인 1604년(선조 37)에 감사 李弘老(1560~1612)가 감영터가 비좁다는 이유로 읍내로 옮겼고, 1645년 12월에 감사로 부임한 林潭(1596~1652)이 1646년 4월에 역적 安益信·柳濯 등의 변란을 토평한 후 모반의 재발을 우려하여 다시 쌍수산성의 舊營으로 돌아왔다. 1653년에 감사 姜柏年(1603~1681)은 중군(산성 안에 있었음)에 감영이 있으므로 불편한 소리가 많이 들려(인가가 드물고 오가는 길이 가파르다는 등) 봉황산 아래의 옛 감영 터로 다시 돌아와 감영을 대대적으로 복원하였다. 그런데 복원된 구영은 大川(현재의 제민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매년 홍수를 당하여 관아가 침몰되어 건물이 벗겨지고 퇴폐하여 도사의 처소인 披香堂에 임시로 머물렀다. 이후 1706년에 감사 李濟(1654~1714)가 봉황산 밑에 감영을 옮길 것을 청했고, 동년 9월 감사 이언경이 도입하자마자 장인을 소집하고 재목을 모아 선화당을 건립했다. 옛 재목을 허물고 좌우에 누각과 창고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李彥經(1663~1710)이 과직을 당하였다. 1707년 3월에 감사 許攄가 부임하여 중군 崔鎭漢에게 감독하여 사역을 시작한 후, 여러 읍에 응모자를 모아 값을 지불하고 부역하게 하여 4개월이 지나 공사가 완료되었다. 봉황산 아래인 오늘날의 감영터로 알려진 현 공주사대부고 일대에 260간의 신 감영 건물을 완공되었다.⁶⁾ 이후 1932년에 대전으로 도청이 옮겨지기 이전까지 공주는 충청도의 수부로서 충청도의 정치, 경제, 행사, 군사, 문화 등을 담당했다.

조선후기 충청 감사는 타도와 마찬가지로 종2품에 해당되며,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순찰사·공주 목사를 겸임하였다. 관찰사 예하로 비장·지교관·기고관·별초병방군관 등 감영 소속의 관직이 44개이며 감영에 배속된 인원은 관찰사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2,299명이나 된다. 이중 군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첨군관 1,000명·재가군관 200명, 별무사 360명, 별초군관 300명, 중군 소속의 군관 30명 등으로 모두 1,790명이다. 관아 건물도 많아 감영 소속이 선화당 10간을 비롯하여 19개소에 207간, 도사 소속이 2개소 14간, 중군 소속이 12개소에 77간 등 총 33개소에 298간을 보유하고 있다.⁷⁾

충청감영이 위치한 공주는 개영 이후인 1646년(인조 24)에 유탁의 변란으로 公山縣으로 강등되면

5)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2008), 123.

6) 윤여현, “조선조 공주(충청)감영고,” 『백제문화』 20(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0), 43-70. ;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2008), 124. ; 장길수, “공주의 충청감영 관련 역사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 10(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30쪽을 참조.

7) 장길수, “공주의 충청감영 관련 역사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 10(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30.

서 공청도에서 홍청도로 변경되었다. 1662년(현종 3)에 殿牌를 잃었다는 이유로 공산현으로 다시 강등되었다가 1679년(숙종 5)에 다시 승격되었다. 1778년(정조 2)에는 대역 죄인 沈鏤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승격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공주의 특산물로는 종이[紙]·먹[墨]·감[柿]·대추[棗]·쏘가리[錦鱗魚]·옹어[葦魚]·송어[秀魚]가 소개되고 있듯이,⁸⁾ 종이와 먹 및 대추나무와 같이 인쇄에 필요한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3. 조선전기 충주감영의 서적 간행

공주감영의 서적 간행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선전기 충주감영의 서적간행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충청감영에서 간행된 서적은 약 83종으로, 충주감영에서 14종, 공주감영에서 69종이 간행되었다.⁹⁾

충주감영은 1427년(세종 9)에 『향약구급방』¹⁰⁾의 간행을 필두로 세종 연간에 『상서』, 『예기』, 『무원록』, 『시인옥설』 등의 서적을, 세조 연간에는 『율해변의』와 『악서』를 간행했다. 이곳에서 간행된 『율해변의』 등의 법률서, 『향약구급방』 등의 의서, 『무원록』 등의 법률서, 『악서』 등은 전라감영이나 경상감영에서 왕명에 따라 서적을 간행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임란 이전 간행된 관판본 醫書의 경우에 충청도는 7종을 간행하여 평안도 4종, 황해도 5종, 강원도 6종보다는 많지만 전라도 30종¹¹⁾, 경상도 27종에 비해 인쇄 활동은 저조한 편에 속했다.

<표 1>에 보이는 충주감영본 중에서 특별한 사례로는 1439년(세종 21)에 간행된 『시인옥설』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은 청주의 인쇄물로 분류되는데, 충청도 관찰사가 간행을 주도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청주가 아닌 충주감영본에 포함시켰다. 『시인옥설』은 중국 宋나라 魏慶之가 편찬한 시문집으로 1439년(세종 21)에 충청도 관찰출척사였던 尹炯(1388~1453)이 간행한 책이다. 1439년 11월에 작성한 윤형의 발문에 따르면, 1436년(세종 18)에 詩學의 雅正한 기풍을 널리 알리고자 한 세종의 뜻을 받들어 도관찰사 鄭麟趾가 經筵 소장본을 저본으로 청주목에서 간행하려고 했는데, 흉년으로 인해 일을 마치지 못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1439년 여름에 관찰사에 부임한 윤형이 옛 책을 살펴보니 誤字가 많아 임금에게 아뢰었고, 이에 세종이 집현전에 수정을 명한 후 완성된

8) 『大東地志』.

9) 감영본의 수량은 새로운 간행물의 출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밝혀둔다.

10) 『향약구급방』은 충주간본 이전에 대장도감에서도 간행되었고, 판을 쓸 수 없게 되자 1417년(태종 7)에 경상도 義興縣에서 중간하였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전 판나주목사 黃子厚가 “『향약구급방』을 인쇄하여 외방에 나누어서 생명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라는 계청에 따라 충청도로 보내 간행하도록 한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은 『고사촬요』 책판목록을 보면 충주가 아닌 청주에 책판이 있다.

11) 현재 충청도에 속하는 금산에서 4종이 간행되었다.

정본을 윤형에게 내려주어 간행하도록 했다. 이 책의 저본이 된 경연소장본은 1324년(고려 충肃王 11) 일본 正中 원년에 간행된 和刻本[일본서]으로 추정된다. 이는 충주감영본 발문 앞에 있는 原識語 말미에 ‘正中(1324)改元臘月下澣 洗心子玄惠(1302-1350)誌’가 새겨진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현 해는 가마쿠라시대에 활동한 천태종의 승려이다.

<표 1> 조선전기 충주감영의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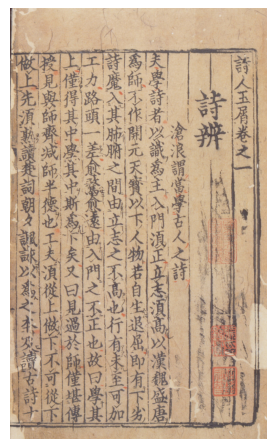
	한글서명	한자서명	간행연도	감영	관련자	『고사촬요』 책판조
1	향약구급방	鄉藥救急方	1427	충주		청주
2	상서	尙書	1430	충주		경주
3	예기	禮記	1430	충주		밀양, 전주
4	신주무원록	新註無冤錄	1438	충주		경주, 남원, 원주
5	시인옥설	詩人玉屑	1439	충주	尹炯	제천
6	율해변의	律解辨疑	1466	충주		×
7	악서	樂書	1468	충주		×
8	신간성리군서	新刊性理群書	1488	충주		광주, 평양, 청주
9	도연명집	陶淵明集	[1552]	충주		충주, 진주
10	대학	大學	[-1568]	충주		경주, 광주, 충주, 평양, 선산, 성주, 수안, 순천, 원주, 해주, 회령, 전주
11	신간보주석문황제내경소문	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1568]	충주		금산, 충주, 선산
12	우암선생문집	寓菴先生文集	1582	충주	金宇宏	×
13	목은문고	牧隱文藁	1583	충주	이증	한산, 전주
14	송재시집	松齋詩集	1584	충주	이우, 오운	×

이 책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충청 감사 윤형을 비롯해 牧使 鄭容, 判官 李槩의 직함과 이름이 보이며, 監校官, 교정자 및 각수 등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세종연간에 충주감영의 서적 간행 과정 및 인쇄에 참여한 인물들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적이다.¹²⁾ 이 책은 이후 일본으로 유입되어 1639년(寬永 16)의 관영관을 간행할 때 모본이 되었고, 1712년(正德 2)에 간행된 와세오겐베이[瀬尾源兵衛] 출판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1712년의 화각본에서도 1439년 당시의 간행자 명단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1244년(淳祐 4)의 서문이 붙은 중국본을 저본으로 1324년 경(서문 작성시기)에 일본에서 간행되었고, 일본판이 조선에 유입되어 1439년의 충주감영본의 저본이 되었다. 충주감영본은 이후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 1639년과 1712년에 간행된 일본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충주감영본 『시인옥설』은 동양 삼국 서적 유통의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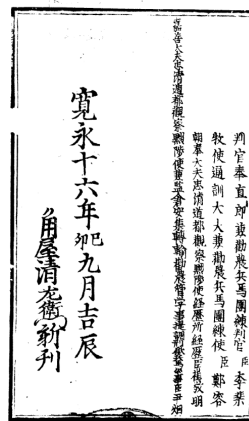
12)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수록함.



<그림 1> 일본 동양문고 소장 『시인옥설』(XI-4-8-10)



<그림 2> 元刊本



<그림 3> 관영판

이 외에도 洪彦忠의 문집인 『우암선생집』은 저자의 딸 洪씨가 家藏해 둔 것을 外孫婿인 金宇宏이 1582년(선조 15)에 간행한 책이다. 퇴계의 문인인 金우평은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妻母 洪씨의 간곡한 청을 받아 淸州牧使 金仲老에게 일을 맡겨 그해 6월에 간행을 완료했다.¹³⁾ 1584년에 간행된 『松齋詩集』은 퇴계 이황의 숙부인 李堦(1469~1517)의 문집으로, 외종손 吳灝이 충주목사에 부임할 때 퇴계의 문인인 鄭琢의 권유로 간행하였다. 정탁은 1583년에 충주목사로 부임하는 오운을 작별하면서 『송재시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별시를 남겼다.

13) 한국문집총간 『우암선생문집』 해제 및 발문기록(萬曆壬午(1582)六月工告訖先生之外孫女婿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金宇宏(1524-1590)謹跋)을 참조.

충주 목사에 공이 제수된 것 기쁘니 / 中原牧伯喜公除
 큰 고을이라 재물 풍족하여 여력이 있겠지 / 大府財豐力有餘
 『송재유집』 남아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 何幸松齋遺集在
 부임하면 물자를 마련하여 간행할 수 있겠지 / 募功能辦下車初
 『송재시집』이 아직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도록 감히 면려한 것이다.¹⁴⁾

『송재시집』의 간행 이전인 1583년(선조 16)에 『牧隱文藁』가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이색의 7세손인 李增(1525~1600)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洪州牧使 崔興遠의 도움을 받아 간행하였다. 책판목록에서는 충주가 아닌 이색의 고향인 한산에서만 확인된다.

조선전기 충주감영에서의 인쇄 경향은 세종대와 세조대 왕명에 의해 이루어진 간행물이 눈에 띄며, 1582~1584년 사이에 선조 및 친인척의 청탁에 의한 간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4. 조선후기 공주감영의 서적 간행

1602년(선조 35) 공주감영이 개영된 이후에 간행된 감영본은 약 69종이다. 이 중 39%에 달하는 27종이 충청 감사에 부임한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간행한 문집류이다. 문집류를 제외한 42종 중에는 1604년경에 간행한 詩傳·四書·家禮·周易·啓蒙·十九史略·三經·心經 등 13종과 사서연해 4종을 합한 총 17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 17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주로 왕명에 의해 간행된 서적이며, 전라감영과 경상감영과 달리 의서·농서·성리서·예서 등의 간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공주감영에서 가장 먼저 간행된 책은 1603년에 成運(1497~1579)의 詩文集인 『大谷集』¹⁵⁾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공주감영의 첫 관찰사로 부임한 柳根의 주도하에 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근은 충청도 관찰사에 두 번 부임했던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바다의 왜적은 홍주에서 막고 호남으로 올라오는 왜적은 공주에서 막아야 한다는 논리 하에 공주에 영을 설치할 때, 159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충청도 관찰사에 재임하고 있던 유근이 이를 수행하였다.¹⁶⁾ 이후 유근은 충청 감사에 다시 부임하여 1602년 감영의 설치를 논하는 계를 올려 1603년 공주 목사를 겸직하면서 쌍수 산성인 공산성을 수축하고 공북루와 진남루를 건립하는 등 공주감영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감사 유근은 詩傳·四書·家禮·周易·啓蒙·十九史略·三經·心經 등을 간행하여 중앙에 올려보내기도 했는데, 이 책들은 성균관에 소장되었다.¹⁷⁾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14) 『약포집』 권1, 詩, 奉別吳大源 濤 赴任中原.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전문을 수록.

15) 1596년(선조 29)에 문인 金可幾가 수집하여 간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7년 후인 1603년에 김가기의 아들 金德民이 충청도 관찰사 유근 등과 더불어 간행한 책이다.

16) 공주시·충남발전연구원, 『충청감영 400년』(아디람, 2003), 104.

17) 『선조실록』 선조 37년(1604) 12월 2일.

등으로 서적과 활자의 소실과 약탈은 물론 중앙의 인쇄업무는 마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 감사가 중앙에서 부족한 서적을 충당하고 지역민에게 보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608년(선조 41)에는 충청 감사 崔沂(1553~1616)가 『柳淵傳』과 『翫齋集』을 간행했다. 최기는 충남 논산에 세거하던 坡平尹氏 八松 尹煌의 장남인 尹勳舉(1591~1639)의 장인이었다.¹⁸⁾ 그가 간행한 『유연전』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실제 사건을 소설화했다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17세기 초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문문학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하는 문학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이원익의 주청에 따라 선조의 왕명을 받은 이항복이 강상의 윤리와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관찬의 성격에 부응하는 의도로 지어진 작품이다.¹⁹⁾ 이후 1674년(현종 15)에 성주목에서 중간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1672년 경에 공주감영에서 『梧里先生遺稿』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李元翼(1547~1634)의 5세손인 李仁復이 1722년에 작성한 『梧里先生續集識語』에 “先祖梧里先生遺稿前集刊在錦營, 續·別集刊在達營(선조의 『오리선생유고』 전집은 금영[공주감영]에서 간행했고, 속집과 별집은 달영[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라고 한 점에서 볼 때, 『오리선생유고』가 공주감영에서 간행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1672년에 이원익의 문인인 許穆이 ‘梧里李文忠公遺卷序’²⁰⁾를 지은 점으로 볼 때, 간행시기는 1672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습재집』은 權曄(1520~1593)의 시집으로, 최기가 『유연전』을 간행했던 같은 해에 당시 공주 목사였던 許筠(1569~1618)과 조력하여 간행하였다. 당대 최고의 문장자로 손꼽히던 간이 최립이 서문을 지었다. 책판목록에서는 경상도 성주와 대구감영의 책판만 확인되며, 최립이 지은 습재집의 서문을 통해 공주감영에서 간행된 정황을 알 수 있다.²¹⁾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간행한 최기는 1616년 해주감사로 있으면서 이이첨, 허균이 일으킨 옥사로 인하여 무고를 당하고 국문 끝에 사망했다.

1636년에 간행된 李廷龜(1564~1635)의 문집인 『月沙集』은 “문인 崔有海(1587~1640)가 그全集을 公山에서 간행했으나, 지금 벌써 헐고 착란되어 차례를 종잡을 수 없으므로 공의 손자인 판서 翊相(1625~1691)이 先人의 뜻을 받들어 堂姪 喜朝(1655~1724) 등과 더불어 重刊하기로 의논하였는데, 老峯 相公[閔鼎重, 1628~1692]이 간역을 도왔다.”라는 宋時烈의 서문²²⁾과 『책판치부책』의 기록을 통해 공주감영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최유해가 쓴 ‘月沙先生文集跋’에는 다음 인용문에서와 같이 이정귀의 상을 치를 적에 공의 두 아들이 선친의 유적을 부탁하자 간행했다는 정황이 수록되어 있다.

18) 윤훈거는 동토 윤순거와 노서 윤선거의 형이자 명재 윤증의 백부이다.

19) 조도현, “<유연전>의 문학적 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34권 제1호(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29.

20) 1722년(경종 2)에 안동 병산서원에서 간행한 목판본 『梧里先生文集』 중 ‘梧里李文忠公遺卷序’.

21) 『간이집』 권9, 『稀年錄』, 權習齋詩集序 “이번에 호서의 방백인 崔淸源[최기] 공과 목사 許端甫[허균] 공 등 두 斯文이 서로 조력해서 선생의 시가 비로소 판각되어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22) 『송자대전』 권139, 序, 月沙集序(1688년).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中外의 벗들이 私財를 모았고, 감사 박명부가 총책임을 맡아 감독했다. 그러나 本家에서 사사로운 일로 公事에 누를 끼치려 하지 않았으므로, 상하가 禮遇하여 보낸 부의를 수레에 가득 실어 와서 필요한 비용에 쓰도록 하였다. 방백이 이에 소금을 마련하여 충분히 공급하게 하고 노고한 자에게 보수를 주며 목재를 자르게 하고 승려들을 불러 모으니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달려왔다. 털끝만큼도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大役事를 신속히 완료하니, 전쟁에 훼손될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 황명 승정 9년 병자년(1636, 인조14) 여름 4월 10일에 문인 통훈대부 공주 목사 首陽 최유해가 재배하고 삼가 쓰다.²³⁾

『월사집』은 정묘호란을 겪은 이후로부터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636년(인조 14) 4월에 간행되었다. 최유해는 1625년경에 부친 崔澱(1567~1588)의 문집인 『楊浦遺稿』를 光山 縣監 재직시절에 간행하였다. 이에 앞서 1613년에 월사 이정구의 서문을, 1621년에 상촌 신희의 서문을, 1625년에 사계 김장생의 발문을 받아 수록했다. 양포 최전은 성호의 문인으로 월사와 상촌 등과 교유하였고, 최유해는 월사의 문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연에서 최유해가 『월사집』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1638년(인조 16)에 간행된 『林塘遺稿』는 鄭惟吉(1515~1588)의 문집으로, 아들 鄭昌衍(1552~1636)이 散佚된 殘稿를 바탕으로 遺稿를 수집하고, 1621년(광해군 3)에 外孫 金尙容, 金尙憲이 繕寫本을 만들었다. 이후 1622년(광해군 4)에 상촌에게 서문을 받았으나 간행하지 못하였다. 당시 鄭昌衍이나 金尙容, 金尙憲이 폐모론에 반대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다시 관직에 나아갔으며,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 과정에서 미처 간행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유길의 증손 鄭太和(1602~1673)가 1637년 6월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부친 鄭廣成의 유지를 받들어 문집을 간행하였다.²⁴⁾

1638년(인조 16)에는 충청 감사였던 金育(1580~1658)이 己卯土禍와 관련된 인물들의 사적을 모아 기록한 『己卯八賢傳』과 『救荒撮要』를 간행했다. 이 외에도 김육의 연보에는 같은 해에 『辟瘟方』, 『薦科榜目』을 간행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 중 『천과방목』은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1권이 현전하고 있다. 1638년(인조 16)에 김육이 간행한 책으로,²⁵⁾ 『己卯薦科榜目』이라고도 칭한다. 기묘 천과는 조광조 등이 건의하여 漢 나라의 賢良方正科를 모방해서 賢良科를 말하는데, 기묘년인 중종 14년(1519) 4월에 120명의 후보자를 근정전에 모아서 시험을 치르고 金湜, 朴薰 등 28명을 뽑았다. 1579년(선조 12)에 소재 노수신이 추모의 마음으로 『기묘천과방목』을 만들었다. 이 책은 당시의 薦目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역임한 관직을 기록하고, 그 아래에 자손을 기록하여 영구히 전해 볼 수 있게 하였다. 김육은 인쇄본 1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도 잘 보존하고 있었지만, 1636년(인조 14)에 중국에 조회하러 갔다 오는 와중에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강화도에서 책을 분실하였다. 이후 1638년(인조 16)에 충청 감사가 되어 청주에 왔을 적에 지역 주민인 朴薰의 증손 朴安時가 鈔錄한 책자를 소지한 것을 알고, 그에게 서신을 보냈다. 같은 榜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자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간역을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에 완료했다.²⁶⁾ 김육은 1638년 6월 25일에

23) 『月沙集』別集 卷7, 附錄, 月沙先生文集跋(崔有海) ;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을 인용함.

24) 한국문집총간 『임당유교』 해제 참조.

25)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의 판목 특별전』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11쪽. 책판의 전체 크기는 세로 22.4, 가로 53.5cm이다. 형태는 사주쌍변, 유계, 9행19자 주쌍행,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다.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대동법과 균역법의 시행을 청하는 한편 1654년(효종 5)에 간행된 대동법의 시행원칙을 담은 『충청도대동사목』의 서문을 짓기도 했다.

1653~1654년(효종 4~5)에는 감사 姜栢年(1603~1681)이 『讀書錄』, 『讀書續錄』, 『竹窓集』을 간행했다. 『독서록』은 洪柱世(1612~1661)가 『독서록』을 간행한 후 지은 서문(1655년作)을 보면 1653년(효종 4)에 새로 부임한 감사 姜栢年과 의기투합하여 함께 교정한 후 간행한 책임을 알 수 있다.²⁷⁾ 홍주세는 1655년(효종 5)에 간행한 『農事集成』의 서문을 작성하는 등 공주감영의 성리서와 농서의 보급에 깊이 관여했다.²⁸⁾ 姜栢年은 1654년에 부친 姜籀(1566~1650)의 문집인 『竹窓集』을 간행했다. 또한 이 해에 金鑾(1571~1648)의 『北渚先生集』도 간행하고자 했으나, 1655년(효종 6)에 안악으로 유배됨에 따라 무산되었다.²⁹⁾ 姜栢年은 1658년(효종 9)에 강원도 관찰사의 자격으로 삼척 부사 李聖基를 도와 삼척에서 『家禮』와 『擊蒙要訣』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1655년(효종 5)에는 공주 목사 申沔(1600~1661)이 『農家集成』을 간행한 후, 이해 11월에 진상하여 虎皮를 하사받았다. 이 책은 세종조에 편찬한 『農事直說』에 朱子の『勸農文』과 중국의『四時纂要抄』 및 老農들의 經驗方을 붙여서 간행한 것이다. 『독서록』의 간행에 참여했던 홍주세는 이 책에도 참여하였고, 신숙의 요청으로 1655년 8월에 『農家集成後敘』를 작성했다. 이후 1656년(효종 7)에 전라 감사 趙啓遠이 자신의 발문을 첨부하여 『農家集成書』를 간행하는데 이르렀다. 발문에 따르면 1656년 봄에 공주 목사 신숙이 바친 『농가집성서』는 장수가 많지 않아 개간하기 어렵지 않으니 인출하여 널리 민간에 배포함으로써 조정에서 농사를 권장하는 뜻을 보여주라는 有旨가 책자와 함께 내려졌다.³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숙이 진상한 건수는 200건인데, 1656년 2월 23일에 그 중 149건은 京畿·黃海·江原·咸鏡·平安의 5도에 반포하고 나머지 51건은 호남과 영남에 보냈다. 그런데 두 지역에 소속된 고을이 많게는 125읍에 달하므로 모두 다 배포하기 어려우니 冊紙 생산지의 여부에 따라 서적을 나누어 준 다음에 각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책판을 제작, 보급하라는 명이 내려졌다.³¹⁾ 완영 간본은 공주감영 본을 이어 간행했다는 뜻에서 ‘完山重刊’이라는 간기가 새겨진 듯하다. 완영 간본은 이후 1806년에 泰仁의 田以采, 朴致維 등 방각본으로 간행되면서 전라도 지역에 널리 보급되었다.

1658년에 간행된 『六先生遺稿』는 사육신 박팽년의 7세손인 朴崇古가 충청도 관찰사 李慶億(1620~1673)의 도움을 받아 편찬한 책이다. 박팽년의 외손[彌甥]인 이경억은 당시 육 선생의 후손들

26) 『잠곡유고』 권9, 跋, 己卯薦科榜目跋.

27) 『靜虛堂集』 卷下, 序, 『刊讀書錄序』. “往歲佐幕湖西時, 方伯姜公栢年, 儒雅好古, 語及是事, 意與之合, 遂更求原本, 別爲繕寫, 付諸剞劂, 工役垂完, 而方伯暨余相繼罷歸, 讎校印布, 皆有所未遑. 越明年乙未(1655)秋, 權公堦(1610~1675)膺命按節, 始克印寄一本, 俾正其脫誤, 使斯文之重得不廢而壽其傳.”

28) 문필로 이름난 洪萬宗의 부친이자, 공주 정안면 沙谷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29) 한국문집총간 『북저집』 해제에는 “金震標가 1654년 淸風 縣監으로 부임하게 되자 淸陰의 刪定本을 가지고 李景奭의 교정을 거친 뒤 서문을 받아 충청도 감사인 姜栢年의 도움으로 여러 읍에 나누어 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655년 炤硝事目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安岳에 중도정배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그 뒤 1658년(효종 9)에 靑松 府使로 나가게 되자 鄭斗卿의 서문을 받아 원집 9권, 별집 3책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30) 완영 간본 『농가집성서』, 조계원의 발문.

31) 『승정원일기』 효종 7년 2월 23일 7번째 기사.

이 이미 판각에 진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육 선생의 유문이 다시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인조반정 이후에 전개되는 사육신에 대한 정려, 복권 등 신원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679년(숙종 5)에는 우암 송시열(1607~1689)이 『朱子年譜』와 『朱子實紀』를 합쳐 만든 주자의 傳記인 『文公先生紀譜通編』을 편찬하고 간행했다.³²⁾ 그런데 1679년에 충청 감사가 간행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책판치부책』의 공주조에는 이 책판이 수록되어 있다. 공주조에 기재된 책판은 송시열의 편찬이 있기 전인 1658년(효종 9) 경에 공주 감영에서 간행된 책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거로 1658년(효종 9)에 송준길이 당시 충청 감사였던 이경억에게 “생각컨대 『문공기보통편』은 이미 판각이 완료되었을 것이니, 속히 인출해서 한 건을 보내주는 게 어떻습니까? 진강할 때에 필요해서이지 사적인 요청은 아닙니다.”³³⁾라는 편지를 보낸 점을 들 수 있다. 즉 1658년 경에 간행된 『문공선생기보통편』이 충청 감사 이경억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주 감영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억은 1657년 8월부터 1658년 9월까지 충청감사로 재직했다.

1662년(현종 3)에는 충청 감사 吳挺緯(1616~1692)가 외조부 유근의 『西垞集』과 조부 吳億齡(1552~1618)의 『晚翠文集』을 간행했다.³⁴⁾ 1675년(숙종 1)에는 감사 孟曹瑞(1622~?)가 외숙부 崔有淵(1587~1656)의 문집인 『玄巖遺稿』를 간행했다.³⁵⁾

1682년(숙종 8)에는 우계 成渾(1535~1598)의 『牛溪先生續集』이 간행되었다. 성혼의 외손인 尹宣舉(1610~1669)와 윤선거의 아들 尹拯(1629~1714)이 편찬하였고, 1681년에 윤증의 당질인 尹敬敎(1632~1691)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이듬해에 공주에서 간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1682년에 윤증이 徐鳳翎에게 답한 편지에서 ‘『坡山續集』 두 책은 당질이 마침 이곳[충청도]에 관찰사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판각하려고 합니다. 두 집안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한 번에 이루게 되었으니 어찌 사림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³⁶⁾라고 언급하고 있어, 『과산속집』 즉 『우계선생속집』이 우계의 外高孫인 관찰사 윤경교의 주도하에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팔송 尹煌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 『우계선생속집』이다. 윤경교는 윤황의 증손이자, 팔송 종가의 종손이었다. 이 『속집』은 정치적인 문제로 원집에서 제외되었던 저작들이 수록되었는데, 이 시기를 즈음해서 성혼이 문묘에 종사되었다.³⁷⁾ 『완영책판목록』(1759)은 공주가 아닌 니산현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32) 『宋子大全』, 附錄 卷7, 『年譜』, “崇禎五十二年己未(1679) … 先生嘗病年譜實紀互有煩複, 合爲一冊, 而名以文公先生紀譜通編, 又錄其所疑於行外, 今刊行者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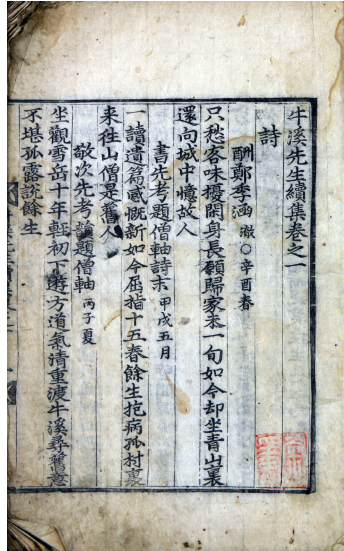
33) 『同春堂集』 卷12, 書, 『與李錫爾 慶億(戊戌)』, “文公記譜通編, 想已刊畢, 切望急速先印一件寄來如何? 進講時甚要故也, 非私請耳.”

34) 『서경집』과 『만취문집』의 간행은 이 글의 ‘5.3 남혈사’를 참고.

35) 『玄巖遺稿』, 『玄巖遺稿跋』(孟曹瑞). “我舅氏所著詩文, 手自繕寫者, 并十餘卷矣. 歲庚戌(1670), 不佞忝按海西節, 告別於東溟鄭公, 公亟勸刊行, 且有序文之諾, 而屬值歲侵, 未遑矣. 適又承乏是邦, 捐出官俸, 首謀鉅梓, 而以其卷秩浩穰, 力所不逮, 姑撮詩若文如干首, 付諸剞劂氏, 數旬而訖工, 斯幸矣.”

36) 『明齋先生遺稿』 卷12, 答徐景輩(壬戌三月七日).

37) 한국문집총간 『우계집』 해제 참조. 우계 선생은 1681년(숙종 7)에 문묘에 배향되었다가 1689년(숙종 15)에 출향되었다. 이후 1694년(숙종 20)에 다시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림 4> 팔송 종가 소장 공주 감영본 『우계선생속집』

1687년(숙종 13)에는 宋柵壽(1537~1626)의 시문집인 『松潭集』은 守憂堂 宋奎昌(1630~?)과 충청도 관찰사 宋奎濂(1630~1709)이 간행한 책이다. 1693년(숙종 19)경에는 姜栢年(1603~1681)의 문집인 『雪峯遺稿』가, 1705년(숙종 31)에는 趙復陽(1609~1671)의 문집인 『松谷集』이 간행되었다.³⁸⁾ 1707년에는 許筠(1551~1588)의 시집인 『荷谷詩鈔』를 증손 許堉가 편집하고 許士奎가 교감하여 간행했다. 허지는 1707년 3월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현재의 공주감영터에 새로운 감영 건물을 세운 인물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1603년부터 1707년 사이에 공주감영에서 간행된 서적을 간행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1610~1630년대 중반까지는 간행물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괄의 난 및 정묘와 병자의 양대 호란 등 국내외 정세의 혼란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다. 1638년에 급증한 간행량은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고 확장했던 김육 한 사람에 의해서였다. 그는 질병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고자 『구황촬요』와 『벽온방』을 간행·보급했다. 또한 기묘명현의 추숭운동의 일환에서 『기묘팔현전』과 『기묘천과방목』을 간행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고조가 기묘명현의 한 명이자 기묘년인 1518년 현량과에서 장원한 金湜이란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1646년에서 1653년 사이의 간행물이 보이지 않는데, 1646년에 유탁 등의 반란을 토벌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방어적 성격이 강화한 쌍수산성의 舊營으로 감영을 옮겼던 시기에 해당한다. 약 69종의 공주감영본 중 1603년에서 1707년 사이에 약 41종이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문집류가 15종으로 37%를 차지하며,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의 간행량이 두드러진다.

38) 현재 두 책의 책판이 마곡사에 소장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4절을 참조.

<표 2> 17세기 경(1603~1707) 공주감영본

no.	서명	간행연도	관련자	비고
1	大谷集	1603	유근, 김덕민	
2~14	詩傳・四書・家禮・周易・啓蒙・十九史略・三經・心經	1604	유근	
15~18	四書諺解	[-1648]		
19	柳淵傳	1608	최기	
20	習齋集	1608	최기	
21	月沙集	1636	최유해	
22	林塘遺稿	1638	정유길, 정태화	
23	救荒撮要	1638	김육	
24	辟瘟方	1638	김육	
25	己卯八賢傳(己卯錄)	1638	김육	
26	薦科榜目	1638	김육	충북대 책판 현전
27	讀書錄・讀書續錄	1653	강백년, 홍주세	
28	忠淸道大同事目	1654	김육(序)	
29	竹窓集	1654	강백년	
30	農家集成	1655	신숙, 홍주세	
31	六先生遺稿	1658	이경억	
32	西垞集	1662	유근, 오정위	남혈사 → 취병서원
33	晚翠文集	1662	오억령, 오정위	남혈사
34	梧里李文忠公遺卷	1672	허목	
35	玄巖遺稿	1675	맹주서	
36	文公先生紀譜通編	1679	송시열, 이경억	
37	牛溪先生續集	1682	윤경교	
38	松潭集	1687	송규립	
39	雪峯遺稿	[1693]	강백년, 강선	마곡사
40	松谷集	1705	조복양	마곡사
41	荷谷詩鈔	1707	허균, 허지	

1730년(영조 6)에는 趙顯命에게 전교가 내려졌는데, “지금 箕營에서 印進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 중 남은 9건을 7도 감영과 양도 留守에 하송하고, 재력이 넉넉한 곳은 本營으로 하여금 이대로 간행하도록 하라”³⁹⁾는 내용이다. 이 명에 따라 전라감영에서는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모두 간행한 반면에 『완영책판목록(1759)』의 충청감영조에는 『삼강행실도』 책판만이 수록되어 있다.

『훈의소학대전』은 『완영책판목록』 등에 수록된 점에서 1744년(영조 20)에 완영에서 왕명에 따라 간행했던 시기를 즈음해서 충청감영에서도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750년(영조 26)에는 徐起(1523~1591)의 시문집인 『孤靑先生遺藁』가 충청도 관찰사 洪啓禧(1703~1771)에 의해 간행되었다. 1751년에는 영조가 온양 온천 행차의 경위와 참여 관원, 왕과 신하들이 화답한 시 등을

39) 『승정원일기』 영조 6년(1730) 3월 23일 21번째 기사.

정리한 『溫幸陪從錄』을 간행하여 印送하였다. 1753년(영조 29)에는 충청 감사 金時榮(1700~1767)이 金尙容(1561~1637)의 문집인 『仙源先生續稿』를 간행했다. 김시걸은 김상용의 현손으로 충청도 홍성 출신이다. 책판목록에는 『仙源遺稿』 또는 『仙源集』의 서명으로 상주(1767년)와 완영(1640년)에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주감영 책판은 보이지 않는다.

1756년(영조 32) 이후에는 문집 간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1756년에 『천의소감』과 『천의소감언해』, 1758년(영조 34)에 『국조상례보편』과 『국조상례보편도설』, 1777년(정조 1)에 『명의록』, 1778년(정조 2)에 『속명의록』, 1785년(정조 9)에 『대전통편』, 1788년(정조 12)에 『禁鬪事目(加鬪申禁事目)』이 간행되었다. 이들 서적은 모두 왕명에 의해 지방에서 번각했던 종류의 책자이다.⁴⁰⁾ 1730년부터 1778년 사이에 공주감영에서 간행된 서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8세기(1730~1778) 공주감영본

no.	한자서명	간행연도	관련자	소장처
1	三綱行實圖	[1730]		
2	訓義小學大全	[1744]		
3	孤靑先生遺藁	1750	홍계희	
4	溫幸陪從錄	1751		
5	仙源先生續稿	1753	김시찬, 정유길	
6	闡義昭鑑, 診解	1756		영은사(1784)
7	國朝喪禮補編, 圖說	1758		
8	明義錄	1777		영은사(1784)
9	續明義錄	1778		
10	大典通編	1785		工庫
11	禁鬪事目(加鬪申禁事目)	1788		工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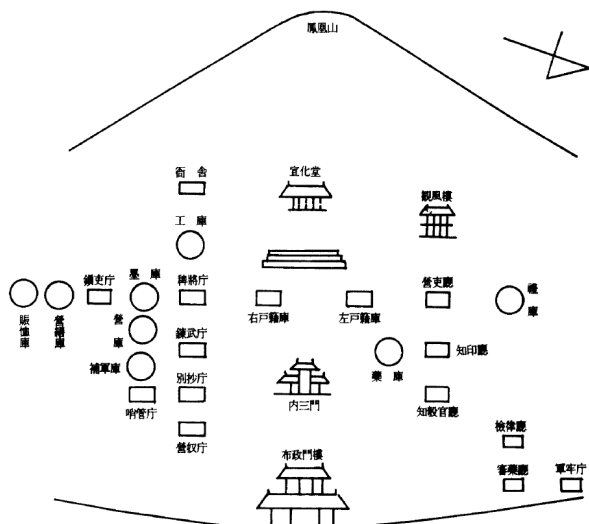
이 외에도 간행시기는 알 수 없지만, 『책판치부책』(1740)에는 다른 책판목록에는 보이지 않는 공주감영책판이 확인된다. 예컨대 金正國(1485~1541)이 편찬한 『警民編』, 『退溪先生喪禮問答』, 『心學圖』, 『經史集說』, 『史纂集』, 『再造蕃邦』, 『李忠靖集』, 『韓景集』, 『檄谷集』, 『溪隱集』, 『默菴集』, 『玄谷集』 등 11종이다. 또한 『완영책판목록』(1759) 등에는 『西巖集』, 『醒翁集』, 『延平集』, 『秋浦集』 및 『增補三韻通考』 5종이 충청감영 간행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간년을 알 수 없는 17종의 서적 중 10종이 문집에 해당한다.

40) 이 외에도 1786년에 『疹疫方』을 공주감영판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책판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점과 간행인물의 거주지가 진천이라는 점과 충청 감사의 간행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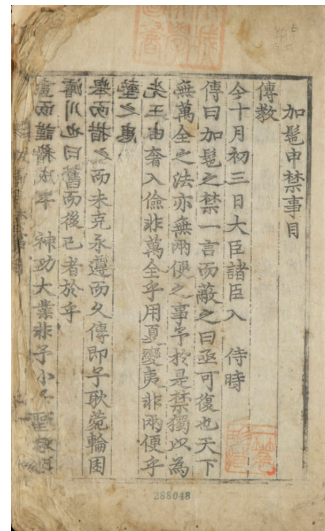
5. 감영책판의 간행과 보관 공간

5.1 工庫

1790년에 충청감사로 부임한 鄭存中(1721~1798)이 편찬한 『공주감영읍지』에는 감영책판의 보관과 실태를 보여주는 ‘책판조’가 기록되어 있다.⁴¹⁾ 먼저 ‘大典通編板, 禁鬻事目板, 在工庫’라는 기록으로, 『대전통편』과 『금제사목』의 책판이 공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공고는 裨將廳의 서쪽에 있었는데, 雜物을 담당하는 감영의 창고였다. 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충청감영의 관아건물로 33동 294칸, 창고 건물로 9동 267칸이, 『충청감영읍지』에는 관아 건물로 18동, 창고 건물로 8동이, 1859년에 편찬된 『공산지』에는 49동 481칸이 기록되어 있다. 감영의 모습과 위치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충청감영의 모습과 위치
(윤여헌, 「조선조 공주(충청)감영고」, 66쪽)



<그림 6> 가채신금사목(규장각)

선화당을 중심으로 좌측 아사 아래에 있는 건물이 공고이다. 바로 이곳에 『대전통편』과 『금체사목』의 책판을 소장했다. 『대전통편』은 1785년(정조 9)에 『경국대전』, 『속대전』 및 각종 법령을 토대로 편찬한 통일 법전으로, 충청감영은 물론 교서관, 영영, 완영에서도 간행되었다. 『가채사목』은 『加髻申禁事目』이라고도 하며, 여성들의 加髻를 금지할 것을 규정한 규칙이다. 1788년(정조 12)에 규장각에서 <그림 6>과 같이 간행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⁴²⁾

41) 『公州錦營邑誌』, 장서각 소장(K2-4213) 해제 참조.

42) 『日省錄』 정조 12년 무신(1788) 10월 28일 9번째 기사. ; 책판목록에는 『加髡申禁事目繪音』의 서명으로 완영에

5.2 靈隱寺

『충청감영읍지』에는 공고 소장 책판 정보 이외에도 “闡義昭鑑板, 明義錄板, 欽恤典則板, 在山城靈隱寺, 甲辰火燒”라고 하여, 『천의소감』판·『명의록』판·『흠휼전칙』판이 영은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갑진년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갑진년은 천의소감(1756), 명의록(1777), 흠휼전칙(1778)의 간행연대로부터 정존중이 충청 감사로 재임한 시기를 고려하면 1784년(정조 8)이 된다. 문헌기록만으로는 간행처와 장판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영은사가 감영의 명으로 실제 간행을 한 것인지, 책판의 보관만 담당했던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림 7> 1872년 지방지도(규장각)

영은사는 공산성 내에 소재하는 사찰로,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에 호서지역의 국방 수비를 담당했다. 문헌상에 간역은 물론 사찰의 내력이나 운영 등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불교사찰사전』에 소개된 다음 내용을 통해 호국사찰로서의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쌍수산 공산성 안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이다. 세조 3년(1457)에 세조의 명으로 창건하여 妙隱寺라고 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이 절에서 훈련을 받고 승병장 기허 영규의 인솔로 금산 전투에 참여했다. 1616년(광해군 8) 이 절에 승병장을 두어 도내의 모든 절을 관리하게 했다고 한다. 1624년(인조 2)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서울을 침공했을 때 인조는 이 절로 피난와서 안전하게 피신한 뒤 영은사라고 했다. 그 뒤 인조는 이 절 일대가 국방의 요충임을 깨닫고 이 절에 승병을 주둔하게 하여 호서지방 방비의 일익을 담당하

서만 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록 했다. 이는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의 승병 활동과 함께 호국사찰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현재는 비구니의 수도처이다.⁴³⁾

영은사에 소장된 『천의소감』은 영조의 집권 의리를 밝힌 책으로 1756년에 편찬되어 완영을 비롯해 영영, 진라도 광주, 기영, 남한산성, 원영(원주), 함영, 해영 등에서 언해본과 함께 전국적으로 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찰에는 『천의소감』 책판 이외에도 『천의소감언해』 책판도 함께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명의를록』은 정조가 세손시설에 그의 대리청정을 반대한 홍인한, 정후겸 등을 사사한 전말을 기록한 책으로 1777년에 왕명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 책 역시 금영은 물론 완영, 영영, 기영, 함영, 해영, 고성의 통제영에서 간행되었다. 『천의소감』과 마찬가지로 『명의를록』 역시 언해본과 함께 세트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영은사에는 언해본 책판도 수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78년에 편찬된 『속명의록』도 금영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명의를록』, 『명의를록언해』, 『속명의록』, 『속명의록언해』가 영은사에 함께 소장되어 있다가 1784년 화재로 전소되었을 것이다. 『흠휼전칙』은 1778년(정조 2)에 홍국영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법률서로, 각종 형구와 형벌에 관한 규식을 정해 놓은 책이다. 금영을 비롯해 완영, 영영, 기영, 교서관, 원영, 함영, 해영 등에서도 간행되었다. 즉, 1756년에서 1778년에 왕명에 의해 간행된 충청감영 책판은 공산성 내 영은사에 보관되었다가 1784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영은사 화재 이후인 1785년부터 간행한 책판은 오늘날의 감영터로 알려진 공주사대부도 일대에 지은 신감영의 공고에 보관되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현재 공고에 소장된 책판의 소재는 행방을 알 수 없다.

5.3 南穴寺

영은사와 공고에 소장된 책판은 모두 18세기에 왕명에 의해 간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나머지 책판들은 어디에서 보관되었던 것일까? 현전하는 충청감영본의 대부분은 간기가 남아있지 않아 소장처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1662년에 간행된 유근의 『서경집』과 오억령의 『만취문집』은 발문의 내용을 통해 공주 남혈사에서 간행,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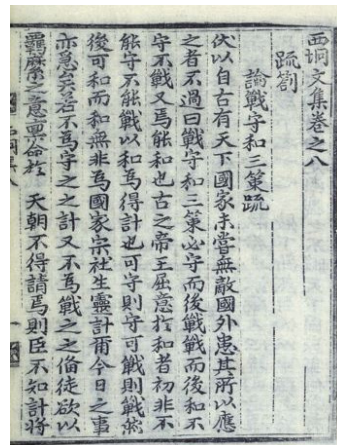
남혈사는 공주시 금학동 남산에 있는 사찰이었다. 백제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1859년(철종 10)에 任挺會 등이 편찬한 『公山誌』에는 방위에 따라 4개의 穴寺가 공주 지역에 존재했다고 나왔다. 절터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 35호로 지정되어 있다.⁴⁴⁾ 통일신라 이후에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吳挺緯(1616~1692)가 충청 감사 시절인 1662년에 이곳에서 외조부 유근의 『서경집』과 조부 오억령의 『만취문집』을 간행했다.

43) 이정,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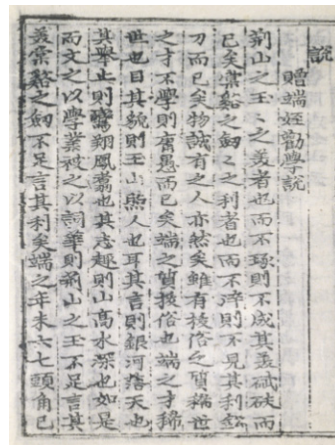
44) 이정,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102.

1662년 7월에 오정위가 쓴 『서경집』의 발문을 보면 가장된 詩藁 약간 편과 황화집에 수록된 시를 수습하여 상하 2권으로 편찬하였고, 봉급을 내어 공인을 고용한 후 공주의 남쪽에 있는 남혈사에서 개관하여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을 끝마쳤다고 한다. 8월에 송시열의 서문을 받아 간행을 마무리한 후, 책판의 영구 보존을 위해 외조부 유근을 모신 祠宇인 괴산[始安]의 翠屏書院에 판목을 보관했다.⁴⁵⁾ 이러한 이유에서 『서경집』은 『완영책판목록』과 『제도책판목록』에서는 충주목 관할의 괴산군 조에 수록되어 있다.

『만취문집』은 吳億齡(1552~1618)의 문집으로, 1662년에 『서경집』을 간행한 직후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정위는 본관이 동북으로, 吳端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吳燾에게 입후되었다. 오단은 吳百齡의 아들이며, 오전은 오억령의 아들이다. 오정위는 충청도 관찰사가 된 것을 기회로 조부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봉급을 내어 목판을 준비한 후, 양부 오전의 문집인 『麟洲遺稿』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오정위는 李敏求의 서문과 오백령의 장자이자 자신의 백부인 吳竣의 발문을 받아 5권 1책으로 간행했다. 이 책 역시 남혈사에서 간행했다고 전해진다.⁴⁶⁾ 남혈사에서 간행된 『서경집』과 같은 해에 거의 동시에 간행되었다는 점과 <그림 8>과 <그림 9>에서와 같이 판형이 유사하여 남혈사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서경집』 책판은 저자와 연고가 있는 괴산의 취병서원으로 보내진 반면에, 이 책은 오억령이 공주에 세거하는 주요 동북오씨 가문이었다는 점에서 공주의 남혈사에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은 『책판치부책』, 『완영책판목록』, 『제도책판목록』, 『삼남책판목록』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8> 서경집



<그림 9> 만취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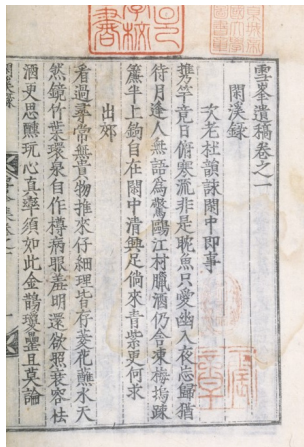
45) 『西桐集』, 『西桐集詩集序』(宋時烈); 『西桐集』, 『西桐集跋』(吳挺緯).

46) 『한국문집총간』 만취문집 해제.

5.4 麻谷寺

공주감영은 약 69종의 서적을 간행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책판은 『천과방목』 1판, 『설봉유고』(347판), 『송곡집』(382판)으로, 총 3종 730판에 불과하다. 그 중 『설봉유고』와 『송곡집』은 모두 마곡사에 소장된 감영책판이다. 마곡사에는 이외에도 『포저유서』를 비롯하여 총 987장의 책판이 남아있다. 마곡사는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이다. 643년(신라 선덕여왕 12)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하사받은 밭 2백 결로 토도사, 월정사와 함께 창건한 절이다. 임진왜란 때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어 그 뒤 60여 년 동안 폐사되었다. 1651년(효종 2) 주지 覺淳이 중수하였으나, 1782년(정조 6) 큰 화재가 일어 1,051여 칸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이후 1788년(정조 12)과 1842년(헌종)에 개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⁴⁷⁾ 1782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들이 특별히 자산을 내어 건물을 중창하였다. 1784년 관찰사 심풍지, 1789년 정순왕후, 1792년 관찰사 이형원 등의 지원이 있었고 1795년(정조 19)에는 도내 首寺刹의 직인까지 받으며 사세가 확장되었다. 이후 1837년 관찰사 심의신, 1841년 관찰사 김영순, 관찰사 한정교, 1879년 도순찰사 조병식 등 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마곡사는 번창했다.⁴⁸⁾

5.4.1 진주강씨와 『설봉유고』



<그림 10> 설봉유고

『설봉유고』는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강백년의 문집으로 전체 351판 중 3판이 결락된 347판이 남아있으며,⁴⁹⁾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등록되어 있다. 이 책판은 『완영책판목록』, 『책판치부책』, 『제도책판목록』의 공주조에 수록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책의 편찬경위나 간행경위는 알 수 없으나, 문집 권30의 권미에는 ‘歲壬申(1692)孟春朱生書于知樂亭’이라는 細註가 附記되어 있어 1692년까지는 문집이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의 아들 姜銑이 1693년 충청도 관찰사에 부임하고, 본집의 책판이 공주에 있었으며, 저자를 享祀하는 機巖書院이 1699년에 설립된 점을 고려해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47) 이정,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149.

48) 홍제연, “진주강씨 설봉공파의 유적과 유물,” 『진주강씨 설봉공파 입향과 정착』 (공주문화원, 2016), 144.

49) 책판의 형태, 보존상태, 및 전체 현황은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 (2014), 33-54를 참조 ;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2) - 충청북도·충청남도』 (주조계종출판사, 2015.3), 152-153쪽에서는 전348판이라고 되어 있다.

50) 『한국문집총간』 설봉유고 해제.

설봉 사후인 1681년에 공주 義朗里 道理山(도리미)에 그의 묘소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진주강씨가 공주에 집성촌을 이루고 현재까지 세거하고 있다. 저자 강백년은 충청 감사 시절인 1654년에 부친 姜籀(1566~1650)의 문집 『竹窓集』을 간행하기도 했다.

5.4.2 풍양조씨와 『송곡집』

『송곡집』은 조복양의 시문집으로, 전체 12권 중 목록 일부가 결락된 256판이 마곡사 정보박물관에 소장⁵¹⁾되어 있다. 좌의정을 역임한 浦渚 趙翼(1579~1665)의 아들이자, 청음 김상헌의 문인이다. 崔錫鼎(1646~1715)이 쓴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迂齋 趙持謙이 부친의 疏章, 詩, 雜文 등을 수습하여 초록했는데, 미처 편집하지 못했다가 조복양의 조카인 趙持恒과 趙持正 형제가 자신에게 편차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조지정이 옥천군수에 부임하여 판각을 시작했는데 끝마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조지항이 능주목사가 되어 간역을 마무리했다고 한다.⁵²⁾ 조지항은 1701년에 능주목사에 제수되었는데, 서문이 작성된 시기는 이보다 늦은 ‘乙酉孟秋’로 1705년이다. 『완영책판목록』, 『제도책판목록』, 『삼남책판목록』 등에는 공주와 성주의 책판은 확인되지만, 능주나 기타 전라도 책판은 보이지 않는다. 조익은 본관이 풍양으로, 그의 후손들이 예산에 세거하고 있는 점에서 능주에서 판각한 책판을 예산 인근의 마곡사로 옮겨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주감영에서 간행하여 마곡사에 비치했을 가능성 및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마곡사가 직접 간행, 보관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익의 문집인 『포저유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감영판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마곡사의 인쇄문화와 관련된 책이다. 조익은 효종, 현종 연간에 김육을 도와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주도한 인물로 『송곡집』의 저자인 조복양의 부친이다. 현재 전체 11권 중 일부 판이 결락된 채 총 382판이 소장되어 있다.⁵³⁾ 1692년(숙종 18)에 작성한 윤증의 발문에 따르면 『포저유서』는 박세채가 지은 명칭으로, 『中庸困得』과 『大學困得』 각 1권, 『論語淺說』과 『孟子淺說』 각 3권, 『書經淺說』과 『易象概略』을 합해서 2권 등, 총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691년 경에 명재가 從孫인 尹東洙(1674~1739)와 함께 교정한 후,⁵⁴⁾ 조익의 손자인 조지항이 선산부사가 되고, 조지정이 대구부 通判으로 있을 때에 『포저집』을 간행하였고, 그 뒤 이 책을 간행하여 印本 한 질을 윤증에게 보내 발문을 부탁했다. 1711년에 쓴 발문에서는 조지항의 손자인 趙漢瑞가 명재를 찾아와 다시 정리하여 간행하고자 한다는 뜻을 보였는데,⁵⁵⁾ 당시 간행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7세기 후반 노소분당과 송시열-윤증

51) 책판의 형태, 보존상태, 및 전체 현황은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 (2014), 55-71쪽;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2) - 충청북도·충청남도』 (㈜조계종출판사, 2015.3), 214-215쪽을 참조.

52) 『松谷集』, 松谷先生集序[崔錫鼎]. “所著疏章詩雜文摠若干卷, 迂齋平日手自哀鈔, 未及編整入梓. 公之姪持恒, 持正兄弟, 懼日久而愈湮晦, 屬錫鼎重加纂次.”

53) 책판의 형태, 보존상태, 및 전체 현황은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 (2014), 72-74쪽 참조.

54) 윤동수의 조부인 윤추의 부인이 포저 조익의 손녀이자 조진양의 딸이다. 즉 윤동수는 조익의 外高孫이다.

사이의 회비시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포저의 부록 문자인 송준길의 시장, 윤선거의 묘지명, 윤증의 연보, 송시열의 신도비명 등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포저연보』 안에 수록, 간행되었다.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에 따르면 조지정이 공주 목사로 재직할 때인 1692년에 마곡사의 스님들에게 부탁하여 목판을 만든 사실이 전한다고 한다.⁵⁶⁾

6. 맺음말

조선시대 서책 간행 유형은 크게 왕명에 의해 간행되는 경우와 관찰사 주도로 간행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경서류, 유가류, 병서류, 의가류 등이 주를 이루고, 후자는 혈연·지연·학연이 개입되어 간행되는 문집류가 대다수이다.⁵⁷⁾ 이러한 경향성은 전라감영이나 경상감영은 물론 본고의 대상인 충청감영에서도 대체로 통용되는 이야기이다. 다만 왕명에 의해 간행되는 서적은 책의 성격에 따라서 팔도 또는 두 곳 이상의 감영에 동일한 서적을 간행하도록 하느냐, 중복성을 피하여 동일한 주제의 각기 다른 서적을 감영마다 달리 지정하여 간행하도록 하느냐의 차이를 보인다. 문집의 경우에는 조선후기로 가면서 중국문집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관찰사와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친인척이나 사제관계를 위시한 간행물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감영의 문집 간행은 누가 관찰사에 임명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고, 그것은 조선후기 정치사의 흐름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

예컨대 완영의 경우, 조선 전기 개인 문집 간행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17세기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죽보와 함께 간행량이 대폭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17세기, 특히 1680년대 노론의 집권과 해당 정당에 소속된 인물들이 관찰사로 재직하던 때를 주목할 수 있다. 충청감영의 경우 문집 간행이 많지 않아서 특징적인 경향성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완영에서와 같이 이전시기에 비해 17세기의 문집 간행량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인쇄사 전반을 살펴볼 때 후기에 문집 간행이 증가하던 추세와 달리 완영 간행 문집은 감소하는데, 충청감영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을 보인다. 이 역시 감영 간본의 보편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감영 간행 문집이 17세기에 대폭 늘어나다가 18세기에 감소되는 요인은 문중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한 문집 간행의 활성화와 관찰사 등 고위층에서 교서관인서체철활자나 전사자 등과 같은 급속활자로 문집을 인출하던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⁵⁸⁾

또한 완영에서는 17세기에 비해 18세기에는 「천의소감」, 「명의록(언해)」 및 각종 윤음과 사목

55) 『明齋先生遺稿』 卷32, 跋, 浦渚遺書跋.

56)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3)』 (2014), 57.

57) 옥영정, “조선시대 완영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집(서지학회, 2011. 12), 456-460.

58) 이상은 김소희, “17~18세기 完營 출판의 간행양상과 특징 -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70집(한국서지학회, 2017), 65-87쪽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등 비교적 짙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령주의류의 서적이 증가했다. 이들 서적은 적은 분량 안에 왕위 계승의 정통성, 정치적 처벌에 대한 정당성, 왕권의 강화, 기강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중앙의 의도를 최대한 빨리 배포하기 위해 완영을 비롯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판각 기술을 보유한 감영에 직접 간행하도록 명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완영과 마찬가지로 경상감영은 물론 충청감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충청감영 서적 간행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타 감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보편적인 상황 이외에 17세기 완영에서는 『강목』, 『주자대전』과 같은 거질의 서적 간행과 『동의보감』, 『의학입문』과 같은 비교적 분량이 많은 특정 의학서적이 왕명에 따라 간행되었다. 반면에 충청감영에서는 거질의 서적 간행이나 왕명에 따른 의학서의 간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완영 간본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충청감영 인쇄기술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본고에서 간략히 언급한 공주감영의 특징으로는 공주감영과 영은사, 관찰사와 남혈사 및 마곡사 등 지역 사찰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다. 특히 18세기에 왕명에 의해 간행된 책판은 공산성 내의 영은사에 보관되다가 화재로 책판이 소실된 후 감영 내 공고로 이동되었다. 17세기 관찰사가 주도한 문집의 경우에는 마곡사, 남혈사 등 공주 지역 내 사찰에서 간행 또는 수장되었다. 특히 마곡사는 진주강씨와 풍양조씨, 남혈사는 동북오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간행과 관련된 인물들이 공주, 예산 등 충청도에 세거하던 문중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公州錦營邑誌』(장서각, K2-4213)

『大東地志』

『日省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http://lib.aks.ac.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 김성수. “충청감영과 청주목의 간행도서에 관한 분석.” 『서지학연구』 45집(서지학회, 2010). 33-63.
- 김소희. “17~18세기 完營 출판의 간행양상과 특징 - 자치통감, 주자대전,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70집(한국서지학회, 2017). 65-87.
-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2) - 충청북도·충청남도』. (주)조계종출판사, 2015.3.
- 박문열. 『충청지역 전적문화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89.
- 옥영정. “조선시대 완영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집(서지학회, 2011. 12). 456-460.
- 윤여현. “조선조 공주(충청)감영고.” 『백제문화』 20(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1990). 43-70.
- 이정.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1996.
- 임선빈. “충청감영 역사기록 정리의 성과와 과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권 2호(역사문화학회, 2008). 113-144.
- 장길수. “공주의 충청감영 관련 역사문화자원과 활용방안.” 『충청학과 충청문화』 10(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27-56.
- 조도현. “<유연전>의 문학적 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34권 제1호(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29-245.
- 홍제연. “진주강씨 설봉공파의 유적과 유물.” 『진주강씨 설봉공파 입향과 정착』. 공주문화원, 2016. 144.
-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 (3). 2014.
- 한국국학진흥원. 『충남지역의 목판자료』 · (4). 2015.
-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의 판목 특별전』. 청주고인쇄박물관, 2010.
-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권.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부 록]

	한자서명	간행연도	전거	관련자	소장처
1	鄕藥救急方	1427	『세종실록』 9년 9월 11일		
2	尙書	1430	『세종실록』 12년 3월 20일		
3	禮記	1430	忠淸道監司 尙書 30件, 禮記 20件을 印進함.		
4	新註無冤錄	1438	김두중, 『한국의학사』, 229. 『승정원일기』 숙종 28년 7월 25일 39번째 기사 대전과 대명률의 판본은 전라도에, 무원록은 충청도에		
5	詩人玉屑	1439	詩人玉屑跋 〈尹炯〉·刊記 『고사촬요』 판목소장처: 제천		
6	律解辨疑	1466	『세조실록』 12년 7월 1일 ○ 『강해율』은 경상도에, 『해이』는 전라도에, 『변의』는 충청도 분송, 이를 각 5백 권씩 刊印하게 하여 중외 반포.		
7	樂書	1468	『세조실록』 14년 4월 28일 ○ 樂書를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에 분송 간행		
8	新刊性理群書	1488	『성종실록』 19년 3월 21일 충청감사 金礪石이 『신간성리군서』 10권 진상		
9	陶淵明集	[1552]	『고사촬요』		
10	大學	[-1568]	『고사촬요』		
11	新刊補註釋文黃帝 內經素問	[-1568]	『고사촬요』		
12	寓菴先生文集	1582	洪彦忠 著, 4卷2冊 寓菴稿: 딸 홍씨가 家藏해 둔 것을 外孫婿 金宇宏이 1582년 초간. 충청감사 김우광이 妻母 홍씨의 간청으로 청주목사 金仲 老에게 일을 맡겨 3권 3책 간행	홍언충 외손서 김우용	
13	牧隱文藁	1583	7세손인 충청감사 李增이 詩를 제외한 文만을 再編하여, 洪州 에서 牧使 崔興遠의 도움으로 18권 간행.	이증	
14	松齋詩集	1584	퇴계 이황의 숙부인 李瑀(1469-1517)의 문집 1584년에 이르러 外從孫 吳灋이 初刊. 오운이 충주목사로 부임 할 때 鄭琢의 간행 권유로 간행 『약포집』 권1, 詩, 奉別吳大源 灋 赴任中原 『송재집』, 『松齋詩集跋(吳灋)』	이우, 오운	
1	大谷集	1603	成運(1497-1579)의 시문집. 1596년에 문인 金可幾가 수집하 여 간행하려다 못함. 1603년 김가기의 아들 金德民이 충청감사 柳根 등과 간행	유근 김덕민	
2 ~ 14	詩傳·四書·家禮 ·周易·啓蒙·十 九史略·三經·心 經	1604	『선조실록』 37년 12월 2일: 충청·전라·경상의 신간서(詩 傳·四書·家禮·周易·啓蒙·十九史略·三經·心經 등을 上送하여 成均館에 藏刊함) 『선조실록』 36년 7월 24일: 충청감사가 封進한 대학 600件을 중외의 대소신료에게 반사.	유근	
15 ~ 18	四書諺解	[-1648]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10월 14일 15번째 기사 홍청도에 있는 『사서언해』의 판본도 아울러 보수하여 찍어 보내도록...		
19	柳淵傳	1608	이항복(1556-1618)이 찬한 柳淵의 傳記. 유연의 家系와 유연 이 誣告로 죽게 된 전말 기록(奎 5868)	최기	

	한자서명	간행연도	전거	관련자	소장처
20	習齋集	1608	權習齋詩集序: 충청감사 崔沂와 공주목사 許筠이 간행	최기	
21	月沙集	1636	1636년, 문도 최유해가 공주에서 전집을 목판으로 초간	최유해	
22	林塘遺稿	1638	鄭惟吉(1515-1588), 2권2책 아들 鄭昌衍이 散佚된 殘稿를 바탕으로 遺稿를 수집하고, 1621년 外孫 金尙容, 金尙憲이 繕寫하여 성책, 曾孫 鄭太和가 1637년 6월 忠淸道 觀察使가 되어 문집 간행	정유길, 정태화	
23	救荒撮要	1638	『잠곡연보』: 同書 跋, 年表, 朝鮮醫書誌 / 규장각 忠淸道監營에서 救荒撮要에 辟瘟方을 붙여서 鑲板 廣布하다. 誌記: 時己卯(1639)正月日守忠淸道觀察使臣金堉(1580-1658) 稽首	김육	
24	辟瘟方	1638	『잠곡연보』	김육	
25	己卯八賢傳(己卯錄)	1638	『잠곡연보』 김육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己卯士禍와 관련된 인물들의 사적을 모아 기록한 책	김육	
26	薦科榜目	1638	『잠곡연보』	김육	충북대
27	忠淸道大同事目	1654	3월, 湖西大同節目序		
28	讀書錄·讀書續錄	1653	同書 刊序, 年表, [藏]藏書閣 1월, 湖西에서 독서록·독서속록이 完刊되다.	강백년	
29	竹窓集	1654	강주(姜籊, 1566-1650)의 문집 작은아들이자 충청감사인 강백년이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 편차하여 2권 1책으로 간행	강백년	
30	農家集成	1655	『효종실록』 6년 11월 3일, 農家集成跋文, 國朝寶鑑 공주목사 申澍이 刊進.	신숙	
31	六先生遺稿	1658	박팽년의 7세손 朴崇古가 六先生의 遺文을 모아 3책을 만든 것을 당시 충청감사 李慶億이 간행	이경억	
32	西垞集	1662	柳根(1549-1627)의 시문집. 외손인 충청감사 吳挺緯가, 家藏 詩藁와 皇華集에 실린 詩를 수집하여 4권 2책으로 편차하여 공주 남혈사에서 간행 후 괴산 翠屏書院에 보관	유근 오정위	남혈사 취병서원
33	晚翠文集	1662	吳億齡(1552-1618): 아들 吳埴이 유근의 딸과 결혼, 吳挺緯가 유문을 수습하고, 家狀과 張維에게 받은 묘갈명을 참고하여 연보를 만들고 吳埴의 문집인 『麟州遺稿』를 附集하여 李敏求의 序와 吳埴의 跋을 받아 5권 1책으로 편차, 충청감사 재직시 공주 남혈사 간행	오억령 오정위	남혈사
34	梧里李文忠公遺卷	1672	1722년(경종 2) 안동 병산서원 간행 목판본 서문	허목	
35	玄巖遺稿	1675	崔有淵(1587-1656)의 시문집 甥姪 孟胄瑞가 1670년에 황해감사가 되자, 東溟 鄭斗卿이 문집 간행 권유하고 서문을 써주기로 하는 등 간행 논의 시작. 1673년에 충청감사 맹주서가 가장초고의 양이 방대하여 全文을 간행하기는 어렵다고 여기고, 그중 일부의 시문을 4권 1책으로 재편하여 간행	맹주서	
36	文公先生紀譜通編	1679	『책판치부책』(1740) 『송자대전』 권7, 연보, 승정 52년 기미, 선생 73세 12월	송시열 이경억	
37	牛溪先生續集	1682	6권 2책 / 成渾(1535-1598) 속집은 1681년 尹拯의 당질인 尹敬教가 충청감사로 부임하자, 1682년에 공주에서 간행(6권 2책)	윤경교	

	한자서명	간행연도	전거	관련자	소장처
38	松潭集	1687	宋栲壽(1537-1626) 손자 宋國士와 증손 宋奎昌 · 宋奎濂, 宗玄孫 宋相朴 등이 수집 편차하여 간행	송규렴	
39	雪峯遺稿	[1693]	『책판치부책』(1740),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 (1837-), 『삼남소장책판』(1842-)	강백년 강선	마곡사
40	松谷集	1705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1837-), 『삼남소장 책판』(1842-)	조복양	마곡사
41	荷谷詩鈔	1707	許筠의 시집. 1책. 허균이 1605에 許筠의 시만을 모아 간행 1707년(숙종 33) 증손 許堉가 편집하고 許士奎가 교간	허균 허지	
42	三綱行實圖	[1730]	『승정원일기』 영조 6년 3월 23일 21번째 기사		
43	警民編	[-1740]	金正國(朝鮮, 1485-1541) 著 『책판치부책』(1740),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 (1837-), 『삼남소장책판』(1842-)		
44	喪禮問答	[-1740]	溪先生喪禮問答		
45	心學圖	[-1740]	『책판치부책』(1740)		
46	經史集說	[-1740]	『책판치부책』(1740)		
47	史纂集	[-1740]	『책판치부책』(1740)		
48	再造蕃邦	[-1740]	『책판치부책』(1740)		
49	李忠靖集	[-1740]	『책판치부책』(1740)		
50	韓景集	[-1740]	『책판치부책』(1740)		
51	檄谷集(?)	[-1740]	『책판치부책』(1740)		
52	溪隱集	[-1740]	『책판치부책』(1740). 李廷立(1556-1595)의 시문집 『백사집』 권2. 敍, 溪隱集序: 이정림의 아들 眞聘이 와서 ...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와 오랫동안 중유하시고 또 서로 잘 아는 분으로는 의당 丈人만한 분이 없으니, (후략)		
53	默菴集	[-1740]	申球(1666-1734) / 송시열의 문인. 저자의 아들 申徵夏(1700~1750)가 저자의 조카 申萬夏가 지은 행장을 바탕으로 1740년대 초반에 陶谷 李宜顯에게 묘지 명을, 陶菴 李緯에게 묘갈명을 받아 유적을 정리. (전사자 인본)		
54	玄谷集	[-1740]	『책판치부책』(1740) 趙億은 이렇게 만들어진 14권 3책을 高山 縣監 재직 중인 1658년 에 목판으로 간행		
55	訓義小學大全	[1744]	완영본은 1744년에 간행 『완영책판목록』(1759), 유처(1778-1800), 『제도책판목록』(1837-), 『삼남소장책판』(1842-)		
56	孤靑先生遺藁	1750	徐起(1523-1591)의 시문집. 洪啓禧가 충청감사 재직시 忠賢 書院을 방문하여 그의 別廟에 배알하고 시문과 사적을 본 것이 간행의 계기. 그 후 서기의 후손 行遠이 간청하여 간행.	홍계희	
57	溫幸陪從錄	1751	同書 序 · 墨書, 年表, [藏]서울대 충청감영에서 온행배종록을 印送하다.		
58	仙源先生續稿	1753	目錄, 續稿 1책 / 김상용(1561-1637) / 모친이 東萊鄭氏 左議 政 鄭惟吉의 女 현손 金時瓘이 충청감사에 부임하여 續稿 간행	김시찬 정유길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과 책판

	한자서명	간행연도	전거	관련자	소장처
59	闡義昭鑑, 諺解	1756	누판고(1796), 각도①(1784-1786)		영은사 (1784)
60	國朝喪禮補編, 圖說	1758	누판고(1796) 洪啓禧(朝鮮, 1703-1771)…等奉敎編輯		
61	西巖集	[-1759]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1837-), 『삼남소장책판』(1842-)		
62	醒翁集	[-1759]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1837-), 『삼남소장책판』(1842-)		
63	延平集	[-1759]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1837-), 『삼남소장책판』(1842-)		
64	秋浦集	[-1759]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1837-), 『삼남소장책판』(1842-) 外曾孫 전라감사 李師命이 金錫胄의 序를 붙여 간행		
65	增補三韻通考	[-1759]	『완영책판목록』(1759), 『제도책판목록』(1837-)		
66	明義錄	1777	각도①(1784-1786) 金致仁(朝鮮, 1716-1790)…等奉敎纂輯		영은사 (1784)
67	續明義錄	1778	각도①(1784-1786)		
68	大典通編	1785	누판고(1796) 金致仁(朝鮮, 1716-1790)…等奉敎纂		
69	禁鬻事目(加鬻申禁事目)	1788			工庫

